



# BVWV ART

Harper's

OCTOBER 2015





RAF SIMONS

ON

# STERLING RUBY

“나에게 스티어링 루비의 작품을 맨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마크 폭스라는 갤러리스트였다. 그는 내게 스티어링의 세라믹 작품을 보여주었는데, 보자마자 더 알고 싶다는 흥미에 사로잡혔다. 스티어링과 나는 약 10년 전쯤 어느 스튜디오에서 잠깐 만나 얘기를 나눴었다. 그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. 전부터 나는 현대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늘 그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오곤 했다. 그러다가 스티어링의 회화 작품을 보았을 때, 그 색채의 사용법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. 그리고 다음에서 첫 컬렉션을 디자인할 때 스티어링의 기법을 떠올리고 그것이 옷감에 적용되어도 매우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. 물론 그가 회화에 사용한 그 많은 색들을 천에 입힌다는 것이 대단한 도전이었음은 잘 알고 있었지만, 결국 그 옷이 런웨이에 올랐을 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. 패션 일을 하다 보면(아트도 마찬가지로) 몇 번씩 자신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곤 한다. 스티어링은 그런 사람들의 나약함을 시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게끔 만든다. 나 역시 언제나 ‘패션이라는 시스템’의 영역을 넘나드는 것을 즐긴다. 나에게 그런 그의 작품은 자유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.” **B**

번역/홍규태 에디터/윤혜정



“패션 일을 하다 보면(아트도 마찬가지로) 몇 번씩 자신의 안전지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곤 한다. 스티어링은 그런 사람들의 나약함을 시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확장하게끔 만든다.”



(위에서부터) 'SP287'(2014) 지난 4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<디올 앤 아이> 시사회장에서 루비, 'Basin Theology/ Butterfly Wreck'(2013) 2012년 가을 디올 오트 쿠튀르 쇼에서 선보인 의상

사진/작품 (위부터) Sterling Ruby, SP287, 2014, Spray Paint on Synthetic Canvas, 96x84in(243.8x213.4cm), Artwork © Sterling Ruby, Photo: Robert Wedemeyer, Courtesy Sterling Ruby Studio and Gagosian Gallery, Basin Theology/Butterfly Wreck, 2013, Ceramic, 28 1/8x39 3/8x41in, (71.4x100x104.1cm) Collection of the Artist, Courtesy Hauser & Wirth, Whitney Biennial 2014(March 7 - May 25, 2014)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, New York, Photo: Bill Orcutt, Simons: Billy Farrell/Bta.Com, Ruby: Allison Buck/Getty Images, Runway: Pascal Le Segretain/Getty Images